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능력성취, 주관적 행복감, 생활만족의 관계

이준모*(전북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능력성취, 주관적 행복감, 생활만족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에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전주, 충청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4년제 대학 교양무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표집 방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최종 213부의 설문지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측정모델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성취능력의 실기능력성취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능력성취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이해성취능력은 여가만족, 실기성취능력은 건강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용성취능력은 생활만족에 대부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무용능력성취, 주관적행복감, 생활만족, 교양무용, 무용교육

1229-7836/17/467

Copyright© 2017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Submitted for publication June 2017

Accepted for publication July 2017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sedona98@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도와주는 곳이며, 앞으로 사회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지식, 기능 및 능력을 갖추게 하는 곳이다(박혜원, 2010). 1990년대 세계화, 정보화 등 사회가 급변하면서, 정부는 1995년 개혁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대학 자율화정책이 공표되면서 대학은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교양과목을 추가하였다(박주호, 부향숙, 2012). 이에 발맞추어 교양무용도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다혜(2014)는 교양무용은 교양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소수의 엘리트 양성 즉 무용예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문성’을 바탕으로 ‘인간성’ 발달의 목적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 어떠한 형식, 유형의 무용이 교수 될 때에는 움직임의 개념 및 원리를 기초로 그 무용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예술적 경험으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교육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윤경(2011)은 대학교양무용의 목적은 첫째,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형성, 둘째, 건강하고 표현적인 신체 육성, 셋째, 신체와 움직임 자각을 통한 공간감과 리듬감 발달, 넷째, 즉흥능력, 표현력과 상상력을 통한 잠재적인 창조적 능력 개발이라고 하였다. 무용은 단순한 신체활동이라기 보다는 신체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표출해 내는 창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윤지영, 2007). 이는 교양과목으로서 교양무용은 단순한 움직임에 대한 실기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능력의 향상을 통해 전인적인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용능력성취란 무용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학업성취로 볼 수 있다(한송이, 2010). 학업성취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적응 뿐 아니라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 등에 밀접히 관련되고 아울러 자신감 등 심리내적 요인에 작용함으로써 학생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정순자, 2011). 무용이라는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얻어지는 학업성취는 개인의 자아성취, 원만한 대인관계와 학생들의 생활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무용능력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무용교육이 신체를 통한 교육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인간형성의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목표를 재설정하여 그 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성취의 정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정정아, 2011).

무용능력성취는 완벽한 공연을 수행해야하는 무용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종속변인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동안 자아탄력성(권묘정, 2010; 권영임, 차수정, 2016; 이영아, 2014; 최소빈, 양정수, 2012), 자기관리(윤정현, 2015), 무용몰입(김유진, 2013; 성경희, 박인실, 2014; 최화영, 2014), 무용자신감(박해리, 2013; 소지혜, 2011; 오아람, 2013)등과 무용능력성취간의 관계를 구명해왔다. 이는 무용능력성취라는 변인이 크게 무용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능력성취와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인 실기능력성취로 나누어져 있어 무용전공생들이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무용능력성취를 이루는가를 다루어 왔다.

교양무용 참여학생들도 무용전공생들의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수업 시 무용원리를 이해해야 하며 기능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무용전공생들과는 다르게 결과로서의 무용능력성취 보다는 그들이 무용능력성취를 통해 자신의 삶에 관해 어떠한 만족을 보일지에 연구자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질적 수준을 얼마나 좋게 판단하는가의 정도(Veemhoven, 1991)를, 개인이 자신의 삶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으로서 개인의 지각된 행복감(김수복, 2016, 재인용)을 말한다. 주관적 행복감은 삶의 만

족,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 등과 혼용되고 있는 상태로 행복감(happiness)과 안녕감(well being)은 맞바꾸어도 의미상 상관없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미영, 2011). 신득렬(2000)은 행복과 학습이 개념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에서 즐거움과 그 결과가 개인적, 공익적인 가치로 행복하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경제적, 시간적인 이유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교양과목은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교양무용은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이화석, 2016). 이해원(2015)은 무용은 음악적 요소와 신체움직임이 함께 포함된 예술적 경험으로서 교양무용 참대학생의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최선의 활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양무용 참여자가 수업을 통해 성취감을 맞본다면 결과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주관적 행복감은 생활만족 척도와 비교하여 좀 더 전반적인 심리적 현상을 이용하며, 개인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정도를 평가한다. 이는 생활만족이 주관적 행복감에 중요한 요소인 반면 개념적으로는 주관적 행복감과 구별 될 수 있다는 것이다(Viren, Ulrich, Stefan, & Martin, 2015). 생활만족은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박영실, 2009, 재인용)로 정의된다. 따라서 교양무용 참여학생들에 대한 생활만족은 참여자들이 수업을 통해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무용학분야에서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무용전공생들과 생활무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여가만족(구경원, 1997; 박혜신, 2005; 방지민, 2010; 송미진, 2008; 이태인, 2013; 하혜석, 2010), 무용몰입(이미숙, 2010; 홍미성, 2013)과 생활만족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교양무용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무용능력성취를 원인 변수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양무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용능력성취, 주관적 행복감과 생활만족을 구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교양무용 수업을 통해 무용능력의 향상이 개인의 행복감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교양무용 참여자들의 무용능력성취와 주관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의 관계를 분석하고 구명함으로써 교양무용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성취능력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주관적 행복감과 생활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성취능력과 생활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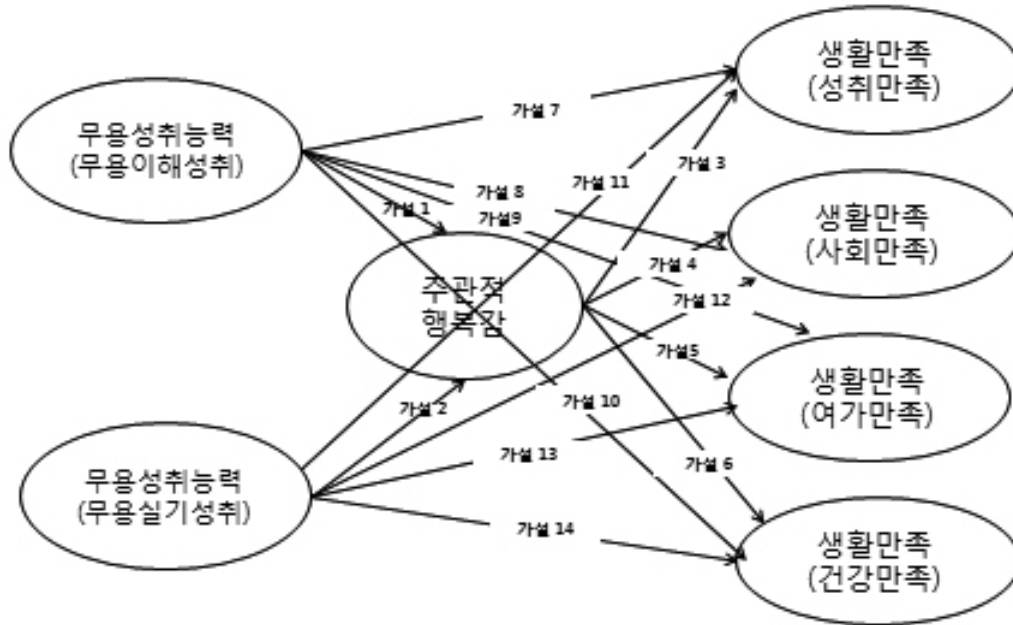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능력성취, 주관적 행복감, 생활만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전주, 충청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4년제 대학 교양무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표집방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총 250부를 배포하여 무응답자 12명과 신뢰성이 낮은 25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213명을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13)

특성	수준	빈도(명)	비율(%)
성별	남	56	26.3
	여	157	73.3
학년	1학년	57	26.8
	2학년	71	33.3
	3학년	42	19.7
	4학년	43	20.2

특성	수준	빈도(명)	비율(%)
전공 계열	인문계열	103	48.3
	자연계열	101	47.4
	예·체능계열	9	4.3
참여 장르	2학기 미만	65	30.5
	2학기 이상-4학기 미만	85	39.9
	4학기 이상	63	29.6
	계	213	100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연구대상자의 기초배경을 묻는 개인적 특성 4문항(성별, 학년, 전공계열, 참여학기), 무용능력성취(10문항), 주관적행복감(4문항), 생활만족(12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무용성취능력 설문지는 라승희(2000), 정은정(2002)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이주연(2016)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무용능력성취는 전반적으로 무용능력의 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용이해능력성취(5문항)는 “무용 수업을 받고 난 후 무용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졌다”, “무용 수업을 받고 난 후 무용 원리에 대한 지식이 강화되었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용실기능력 성취(5문항)는 “무용 수업을 받고 난 후 나의 무용 실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무용 수업을 받고 난 후 나의 무용실기 능력 향상에 성취감을 느꼈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무용성취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행복감 설문지는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임지숙(2014)이 번안하고 강진영(2014)이 무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또래 친구들에 비해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등으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 설문지는 이재우(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성취만족(3문항)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 한다”, “무용(댄스)에 자신감을 얻어 만족 한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만족(3문항)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만족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 한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가만족(3문항)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만족 한다”, “수업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 만족 한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만족(3문항)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만족 한다”,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 만족 한다” 등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설문지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이 연구는 설정한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도출을 통하여 최종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적합도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은 X^2 , RMR, GFI, N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적합도 지수가 GFI, NFI, TLI, CFI는 .90이상, RMR, RMSEA=.05이하이면 비교적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송지준, 2015).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용능력성취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40.510(df=5.064, p=.000)$, RMR=.031, RMSEA=.031, GFI=.947, NFI=.939, TLI=.906, CFI=.932로 나타났다. 주관적행복감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46.067(df=23.034, p=.000)$, RMR=.042, RMSEA=.045, GFI=.903, NFI=.951, TLI=.914, CFI=.911로 나타났다. 생활만족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207.533(df=7.156, p=.000)$, RMR=.041, RMSEA=.071, GFI=.937, NFI=.962, TLI=.910, CFI=.978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기준치를 상회하여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3>은 각 변인간의 측정모델분석의 결과이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인 개별요인에 대한 항목들의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기준치 .70이상, 개념 신뢰도(CCR) 기준치 .70 이상 값을 보이고 있어 이 연구에서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은 적절한 집중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표 2. 변수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df)$	p	RMR	RMSEA	GFI	NFI	TLI	CFI
무용성취능력	40.510(5.064)	.000	.031	.013	.947	.939	.906	.932
주관적행복감	46.067(23.034)	.000	.042	.045	.903	.951	.914	.911
생활만족	207.533(7.156)	.000	.041	.071	.937	.962	.910	.978
기준	$p>0.5,$	$<.05$	$<.05$	$<.08$	$>.09$	$<.09$	$>.09$	$>.09$

4. 자료처리

이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첫째, 각 측정도구의 요인별 문항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측정모델요인분석이 실시하였다. 둘째,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측정모델분석결과

요인	요인 적재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측정 오차	SMC	개념 신뢰도	AVE	
무용성취능력	무용이해	1.000	.704	-	.305	.855	.931	.773
	성취	1.053	.816	.104	.166	.583		
	무용실기	1.000	.754	-	.276	.712		
	성취	1.365	.975	.110	.035	.606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1.000	1.125	-	.169	.863	.866	.775
	행복감	.577	.670	.067	.328	.605		
생활만족	성취만족	1.000	.672	-	.430	.827	.785	.648
		.984	.814	.095	.174	.663		
	사회만족	1.000	.909	-	.153	.451		
		.764	.778	.051	.279	.449		
		1.039	.929	.048	.126	1.266		

요인	요인 적재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측정 오차	SMC	개념 신뢰도	AVE
여가만족	1.000	.778	-	.292	.951	.856	.749
	.906	.844	.076	.149	.568		
건강만족	1.000	.763	-	.206	.666	.906	.829
	1.351	.925	.110	.089	.495		

III. 연구 결과

1.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추출된 변수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판별타당성의 검증은 변수 간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값보다 낮으면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한다(Fornell & Larker, 1981). <표 4>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모든 요인 간 $p < .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개념들의 상관계수의 제곱이 AVE 값보다 작게 나타나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변인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주관적행복감	성취만족	사회만족	여가만족	건강만족
1	1						
2	.609**	1					
3	.245**	.184**	1				
4	.597**	.591**	.327**	1			
5	.555**	.542**	.476**	.694**	1		
6	.318**	.529**	.413**	.556**	.637**	1	
7	.470**	.425**	.440**	.492**	.579**	.592**	1

$p^* < .05$, $p^{**} < .01$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적합도 검증결과 보면, $X^2=273.153(df=4.017, p=.000)$, RMR=.043, RMSEA=.019, GFI=.967, NFI=.987, TLI=.963, CFI=.911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X^2(df)$	p	RMR	RMSEA	GFI	NFI	TLI	CFI
273.153(4.017)	.000	.043	.019	.967	.987	.963	.911
$p > .05$,	$< .05$	$< .05$	$< .08$	$> .09$	$< .09$	$> .09$	$> .09$

3. 변인 간 인과관계 검증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능력성취, 주관적행복감, 생활만족의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무용성취 능력이 주관적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 이해능력성취의 경로계수는 .421($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으며, 실기능력성취는 .002($p=.986$)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둘째, 주관적행복감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 주관적행복감의 경로계수는 성취만족 .397($p<.05$), 사회만족 .412($p<.001$), 여가만족 .401($p<.001$), 건강만족 .307($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어 모두 채택되었다. 셋째, 무용성취능력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 이해능력성취의 경로계수는 성취만족 .781($p<.001$), 사회만족 .708($p<.001$), 건강만족 .376($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으며, 여가만족은 .037($p=.752$)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실기능력성취의 경로계수는 성취만족 .173($p<.01$), 사회만족 .252($p<.01$), 여가만족 .392($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으며, 건강만족은 .009($p=.858$)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표 6. 가설검정 결과

경로	표준화	S.E	C.R./p값	채택여부
이해능력성취→주관적행복감	.421	.186	2.264*	채택
실기능력성취→주관적행복감	.002	.109	.018	기각
주관적행복감→성취만족	.397	.047	2.073*	채택
주관적행복감→사회만족	.412	.059	6.970***	채택
주관적행복감→여가만족	.401	.057	7.086***	채택
주관적행복감→건강만족	.307	.046	6.645***	채택
이해능력성취 →성취만족	.781	.142	5.499***	채택
이해능력성취 →사회만족	.708	.144	4.918***	채택
이해능력성취 →여가만족	.037	.118	.316	기각
이해능력성취 →건강만족	.376	.094	4.013***	채택
실기능력성취→성취만족	.173	.073	2.353**	채택
실기능력성취→사회만족	.252	.084	3.016**	채택
실기능력성취→여가만족	.392	.078	5.040***	채택
실기능력성취→건강만족	.009	.050	.179	기각

IV. 논 의

이 연구는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능력성취와 주관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성취능력의 실기능력성취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능력성취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변인간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가 없어 학업성취도가 주관적 행복감(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안도희, 김유리(2012), 조한익(2012), Murray-Harvey(2010)의 연구들이 이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허승연(2009)은 공부 외에 역동적인 생활경험과 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행복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성

취에 대한 자신감이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역의 관계로 주관적 행복감(안녕감)이 학업성취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정경진(2015), Rode et. al.(2005)은 학업성취를 높이려고 하는 것 보다는 먼저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업성취증진이 예상된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성취가 먼저인지 행복감이 먼저인지의 선후 관계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기능력성취와 주관적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는 교양무용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실기능력성취를 통해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연구자가 오랜 무용 교육현장에서 느낀 바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교양무용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전공이 주로 예체능계보다는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적으로 많고 무용전공자들은 실기능력을 우선적으로 두는데 반해 그들은 무용원리를 먼저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양무용 수업 시 무용지도자들은 무용전공생들과 달리 무용의 원리를 충분히 인지시킨 후 실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양무용 환경에서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무용능력성취와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행복감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병주(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Neil과 Richard(2008)도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을 지닌다는 것은 개인이 그의 삶의 조건(life condition)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갖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주 겪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여 이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나 감정이 주관적 행복감이기 때문에 생활만족과 근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 연구들이 미진하여 유사한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로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여가만족은 주관적인 감정 상태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인간이 여가활동을 통하여 내면으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분상태(황선환, 김종호, 2016, 재인용)라고 정의하면 교양무용이라는 수업을 통해 느끼는 참여자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여가활동 또는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영향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강현욱, 전태준, 2012; 권기남, 이정래, 2011; 김찬희, 서영삼, 2015; 조수현, 장현중, 2011; 주완청, 박진경, 2013)들은 두 변인간의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유사한 변인간의 연구로 한국무용참여가 중년여성의 주관적 웰빙과 삶의 질(최 선, 2008), 생활무용 참가자의 심리적 웰빙과 생활만족(김은주, 배소심, 2008), 생활무용참여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과 생활만족(김 선, 최재희, 2013)의 연구도 참가대상이 달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연구결과를 다소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무용지도자들은 교양무용 참여자들이 수업을 통해 주관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수업전반에 걸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의 삶속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행복감이기 때문에 수업 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이해성취능력은 여가만족, 실기성취능력은 건강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용성취능력은 생활만족에 대부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변인 간의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학업성취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Chang et. al.(2003)의 연구가 이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백은지(2013)는 노력을 중시하고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자기발전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을 높게 느낀다고 하였다. 골프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중화(2009)의 연구

에서 스스로 운동에 참여해서 기술 숙달과 성취감, 만족감, 즐거움, 쾌감 등의 내적 참여동기와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 개인의 성취목표, 건강 증진, 외적 과시 등의 외적 참여동기 모두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성취행동은 생활만족을 더 많이 한다는 김선미(2015), 학업성취와 학교생활만족의 상관관계를 구명한 박종모(2015),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2014)의 연구들도 이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해주고 있다. 교양무용은 참여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이도가 높지 않으며 반복적인 동작의 연결로 인해 무용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생활만족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용이라는 예술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활을 원만하고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각별한 인지가 필요하며 무용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능력성취와 주관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전주, 충청북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4년제 대학 교양무용 참여자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무용성취능력의 실기능력성취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능력성취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양무용 참여자의 이해성취능력은 여가만족, 실기성취능력은 건강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용성취능력은 생활만족에 대부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교양무용 참여자들의 무용능력성취, 주관적 행복감, 생활만족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구명되었다. 이에 교양무용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무용성취능력을 높여 참여자들이 주관적 행복감과 생활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무용 수업을 통해 무용능력의 향상이 개인의 행복감과 생활만족을 측정하는데 있어 양적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질적방법론을 통해 교양무용 수업의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양무용 수업의 성과를 높이기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2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고등학생의 지각된 교사태도,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교육과학연구*, 45(1), 181-203.
- 구경원(1997). *중년여성의 무용프로그램 참여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묘정(2010).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 및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권영입, 차수정(2016). 무용전공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자아탄력성 및 무용능력성취와의 관계. **한국무용연구**, 34(1), 1-32.
- 김미영(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주관적 행복감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 선, 최재희(2013). 생활무용참여 노인의 자기 효능감, 심리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0(1), 175-191.
- 김선미(2015). **골프 참여자의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행동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복(2016).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주관적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유진(2013). **무용전공대학생의 자신감이 몰입경험과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주, 배소심(2008). 생활무용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심리적 웰빙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16(1), 1-17.
- 라승희(2000). **대학무용(학)과의 창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영실(2009). **생활체육 활동이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 운동증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종모(2015).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주호, 부향숙(2012). 연구중심대학 정책이 학부 교양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친 영향. **교양교육연구**, 6(3), 321-356.
- 박해리(2013). **신체만족도가 무용전공대학생의 무용능력성취 및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혜신(2005). **중년여성의 생활무용참여에 따른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박혜원(2010). **대학 교양중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지민(2010). **중년여성의 생활무용참여가 생활만족도 및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은지(2013). **생활무용참가 여성의 성취목표성향이 재미요인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성경희, 박인실(2014).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사용이 학생들의 무용몰입 및 무용성취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1), 55-68.
- 소지혜(2011). **무용전공대학생의 신체적자기지각이 무용자신감과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송미진(2008). **무용활동 참여에 따른 실버세대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지준(2015).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 신득렬(2000). 행복과 교육. **교육철학**, 18(3), 191-208.

- 안도희,김유리 (2012). 기대 및 가치 신념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3), 293-319.
- 오아람(2013).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신체관리가 무용자신감과 무용능력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윤정현(2015). 무용전공대학생의 자기관리가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지영(2007). 무용전공 여고생의 성격특성 비교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7(1), 29-42.
- 이다혜(2014). 대학 교양무용 참여에 따른 대인관계 변화.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2010). 무용활동 참여동기와 참여만족, 몰입 및 생활만족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영아(2014).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능력성취와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경(2011). 대학교양무용의 교수유형이 흥미도, 친밀감 및 무용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재우(2008). 불링참여자의 신체적자기개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연(2016).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자신감, 무용몰입, 무용능력성취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3(2), 29-40.
- 이중화(2009). 생활체육 골프참가자들의 참가동기에 따른 자아성취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 이태인(2013). 남성노인의 생활무용 참여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화석(2016). 교양무용 참여 대학생의 관여도, 참여만족, 주관적 행복감, 참여 후 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1049-1061.
- 이혜원(2015). 교양무용 참여대학생의 긍정적 착각, 자아탄력성,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4(6), 915-929.
- 임지숙(2014). 노년기의 자기고양적 편향, 생애사건 해석과 주관적행복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경진(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병주(2013). 힐링푸드 사찰음식 이용객의 웰니스, 생활만족, 주관적 행복감,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학회지**, 9(3), 21-43.
- 정순자(2010).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수준별 학업성취 결정요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은정(2002). 무용 실기수업의 교수행동이 학생의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정아(2011). Feldenkrais Method가 현대무용전공자의 신체자각, 표현능력,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한익(2012). 초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성취정서,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6(4), 1001-1021.
- 최 선(2008). 한국무용이 중년여성의 주관적 웰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1), 139-155.

- 최소빈, 양지수(2012). 예술고 무용전공자의 자아탄력성이 무용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무용역사기록학회지*, 24(1), 169-187.
- 최화영(2014). 무용전공학생의 정서지능과 무용능력성취의 관계에서 무용몰입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혜석(2010). 교양무용수업 참가 대학생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과의 관계. *무용역사기록학회지*, 18(1), 99-112.
- 한송이(2010).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미성(2013). 생활무용참여자의 공연경험이 무용몰입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0(1), 139-155.
- Chang, L., McBride-Chang, C., Stewart, S. M., & Au, E. (2003).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family relations in chinese adolesce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82-189.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urray-Harvey, R. (2010). Relationship influence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ing at school.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7(1), 104-115.
- Rode, J. C., Arthaud-Day, M. L., Mooney, C.H., Near, J. P., Baldwin, T. T., Bommer, W. H., & Rubin, R. S. (2005).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4(4), 421-433.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 Research*, 24, 1-34.
- Viren Swami, Ulrich S. Tran, Stefan Stieger, Martin Voracek (2015). Associations Between Women's Body Image and Happiness: Results of the YouBeauty.com Body Image Survey(YBI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3): 705-718.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dance ability achievement, subjectiv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participated liberal dance class

Lee Joon Mo(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dance ability achievement, subjectiv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participated liberal dance class. The subject was a population of 250 university liberal dance students during the period of time September 30, 2016 to November 6, 2016. The data on 213 students were used for actual analyses and data were processed with SPSS 18.0 for Window and Amos 18.0 for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dance ability achievement had positive effects on subjective happiness. Second, subjective happiness had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Third, dance ability achievement had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dance ability achievement, subjective happiness, life satisfaction, liberal dance, dance education

논문투고일: 2017. 5. 31

논문심사일: 2017. 6. 30

심사완료일: 2017. 7. 25